

# 살 양으로 비동비동하기 때문에 죽는 법이에요

## 25면에서 계속

몸뚱이를 외려 후사를 시키면서 병을 들게 하면서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대해 거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보는 것도 고정된 게 없죠. 듣는 것도 또 말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움쭉거리는데도 자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니까 그냥 공했다는 얘깁니다. 고딕이 불을 지피기 않다는 얘깁니다. 그 도리를 한 백자장사 이와 같이 확 이렇게 일면 고가 따로 있나요? 내가 고라고 생각하니까 고지, 고가 없다면, 고리는 이름이 없다면 집착도 없을 겁니다. ‘고가 있더라도!’ 이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이름 그걸 거고서 집착을 하나까 진짜 고가 되죠. 그게 집착만 벗어지면, 그 이름을 거고 고 뜻을 안 하면 그냥 말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고다 말한다 이런 게 없어요. 없고 그냥 여여하죠.

그러니까 고정된 것도 없고 참나참나 그냥 회해서 돌아가고 그런데 고가 불을 지리가 있고 병이 불을 지리가 있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가 망가지면 폐차시키고 다시 차를 깨내면 되고 그렇듯이 격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 못된 성질이 고쳐지지 않아요

**문** 제가 성질이 못돼 거지고 남편이나 애들 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있는 대로 성질을 부리게 됩니다. 가끔씩 자신을 돌아다보면 죄를 너무 많이 짓는 것 같아 미안한 생각이 들다가도 이 못된 성질이 잘 고쳐지지 않아 속상합니다. 저도 제 마음을 제대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우리가 항상 그런 말을 하지만 불이 오면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러다가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집니다. 양당한 거지만 남죠. 그러나 낙엽이 떨어지니까 떨어진다 하고 해서 울지도 않고 인내로써 참고 견디면서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고 해도 불이 오길 기다리는 인내는 물러서지 않는 데, 하늘과 고등 동물인 사람으로서 조금만 추위도 그저 당황하고 온통 아편법석을 떨어서야 되겠습니까? 조금만 화가 나도 “당신이 그랬어, 뭐 어쨌어.” 그리고 자기가 신경질나면 애한테 그냥 막 신경질내고 말입니다. 왜 속

습니까. 화가 나더라도 모든 것을 한번 골라서 내놓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좋은 말이 나갈 수 있고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거는 한 뿌리로서 벌써 한 식구라 하면 바로 전기 기설이 된 한방 식구입니다. 그래 서 내가 불을 켜면, 식구들이 불을 못 켜다 할 지라도, 밥게 못 산다 할지라도 내가 스위치를, 즉 말하자면 주인공부에 우리 가정을 화목 하게 이끌어 줄 수 없다고 믿을 때에, 바로 진정로 믿을 때에 거기에서 벌어지면서 식구들이 다 편하게 살죠. 그러나 이것이 무량수와 같이 한생각을 잘못하면 무량수와 같이 죄가 붙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본래 죄가 없기 때문에 불을 지리가 없다는 그 자체를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아니 고 저것도 아닌 그 가운데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미치는 대로 응도에 따라서 오면 오는 대로 우리가 그냥 대처해 나갈 뿐이지, 무엇이 살고 무엇이 죽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냥 병도 불을 지리가 없고 가난도 불을 지리가 없고 입보도 불을 지리가 없고 팔지도 운병도 다 불을 지리가 없으니 그대로 거기서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거지고 나가신다면 머지않아서 아마 아하,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아서게 될 것입니다. 망상을 꿈으려고 하지 마시고 모두 다 영광로 에 놓는 작업만 한다면 자동적으로 나가서 새 쇠로 생선이 돼서 편 데로 이름을 거지고 나는 가는 가는 자동적입니다.

흔히 말하는 오싹통 그 자체도 바로 거기에 서 벗어나야 그 재료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오싹통 안에 매어 있다면 바로 오싹통을 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싹통 그 자체에서도 벗어나야 그 재료로다가 오븐에 넣어서 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 우스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만한 그릇에서 헤어나 지 못하는 사람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어디든

지, 내가 어느 소품에든지 들어가 봐야 바로 흥망일 집승 수가 있고 뭐 그것에도 얽들려져 보고 풍그릇에도 얽들려져 봐야 ‘아하, 부처님이라는 것은 바로 대(對)가 없는 게 부처님 이로우구나.’ 이런 사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렇게 믿고 습으로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그 고집,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고집을 다 버리고 현재에 그냥 들어오는 대로, 미치는 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더 생 각할 수 있는 여우를 거지신다면 우리는 참으 로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 군이 법문에 가서 예배를 올리야 되는지요

**문** 공부하는 사람 몇몇이 저기가 있는 곳이 곧 법당이면서 군이 만들어진 부처님 전에 가서 예배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기에 저 나 틈때로도 마음으로 하면 되지 군이 몸이 그렇 게 법당을 찾아가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면 바르게 가르

### 왜 속습니까!

### 화가 나더라도 모든 것을 한번 굴러서 내놓을 수 있을 때에

### 비로소 좋은 말이 나갈 수 있고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쳐주시기 바랍니다.

**답** 아어, 그럼 발도 여러분 마음으로만 먹지 밥을 왜 먹습니까? 아, 마음으로만 먹지 왜 밥을 먹어요? 마음으로만 먹어도 배부르다면 그냥 마음으로만 접취 보세요. 그러면 벌이할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합니다. 그것은 버려라 저것도 버려라 한 다고 해서 부처님 앞에 가서 예배 올리지 말 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밥 한 그릇을 먹더라도 여대의 삼채 이 부처님들을 다. 우생 무생의 어떠한 생명도 빠진없이 한테 합쳐서 내 내공에 있으니까 그 저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민양에 그 밥 한 그릇을 먹는다면 삼천대천세계에 그 공양 을 다 올리기도 남음이 있는 예배가 됩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하되 사원에 가면 벌써 법당 에 올라가서 밥 한 그릇을 올리고 공양 한 그릇 올리는 것이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이겁니 다.

우리가 어느 사원엘 가더라도 벌써 법당으

로 올라가서 예배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예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각자 사람마다 다 주인 공이라는 그 자체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 내 마음, 내용에 모든 걸 예배 올리는 것입니 다. 한군데에, 부처님의 마음이 내 내공의 마 음이니, 내공과 그 부처님의 내용이 돌아 아니 기 때문에 항상 그 위애다가 예를 올리는 거 죠. 그리고 자기 몸뚱이는 바로 행복을 시키는 겁니다. 숙연하게 항상 고결 속이고 겸손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자기 혼자 무엇을 조금 알 았다고 해서 그것을 주장하고 내세운다면 안 될 말입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소도 언덕 이 있어야 비빈다는 뜻으로, 바로 우리가 자기 혼자만이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은 자기 지금 육신과 더불어 망가지는 법 입니다. 혼자만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49년 살하시고 여러분을 위 해서 불태웠지만 ‘나는 그렇게 불태운 사이도

없고 말한 사이도 없고 그러나 너희들 잘 생 각을 해라.’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부 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안 다고 해서 내세울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 런 조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올리지 않 아야 된다는 법도 조금도 없습니다. 예배는 예 배대로 올리면서 바로 자기 주인공과 부처님 의 주인공, 그 마음과 마음이 한테 합쳐서 향 기로운 법세가 나고 온 누리를 비쳐 줄 수 있 는 그런 빛을 받을 수 있는 자기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럼 부처님 앞에 가서 예배 올릴 때, 말도 없고 행동도 없고 그냥 앉아 계신 그 부처님 이 왜 그렇게 높고 광대무변하냐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처님이 행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별게 봐서 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행하는 것보다 도 더 행을 잘하시고 더 말도 잘하시고 더 우 주법계를 싸고 뒤집었다 짓혔다 뒤집었다 짓

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도리를 안다면 바로 여러분과 부처님의 마음 자체와 돌아 아닌 자 리에 예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마음을 밝히고자 해서, 또 내 마음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돌아가는 이치가 바로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역력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이 그렇다고 해서 덩 달아 따라서 불상을 불신하거나 부처님 전에 예배하는 걸 무시한다면 되겠습니까. 항상 겸 순한 그런 기정기점을 가져야 합니다.

### 건설으로 가는 바른 길인지요

**문** 나름대로 건설을 향해서 공부하는 과정 중에 가끔 어떤 강력한 경험이 옵니다. 뭔가 보여지기도 하고 들려지기도 합니다. 처음에 는 너무 환희로웠는데 가끔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지 무서운 생각도 듭니다. 이것이 건설 하는 과정에서 좋은 경험입니까?

**답** 이 ‘나를 발견한다’ 이라는 것은 처음에 는 모든 것을 한군데 맡기고 일임하고 ‘거기 사만이 해결할 수 있다. 거기서만이 병도 낫게 할 수 있다. 거기서만이, 모든 걸 거기서만이 할 수 있다.’ 라는 그 믿음과 그 진실과 틀려서 지 않음을 동시에 가졌을 때에 물론 감응이 옵니다. 감응이 오고 그때에는 아주 더 어렵습 니다. 그러나니까 감응이 오는 것은 깨달음의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보에게 한다면은 머리로 들리게 한다면은가 이런 것에 그럴려면 절대 안 되죠. 모든 걸 자기 마음이 자기를 다스리면서 근본에다 다시 놓고 누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말고 부드럽게, 남한테 이익 하게는 못해 줄만큼 해롭게는 하지 말고, 모든 걸 자기 탓 으로 돌리고 그렇게 놓으면서 가면 그것이 바로 지름길입니다. 그게 건설하는 데에 시발점 입니다.

세상은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응이 오는 것도 감응이 왔다가 안 왔다가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욕심부리지 않으셔야 될 겁니다. 그저 오면 오는 대로 그냥 느긋하게, 아주 진 짜로 믿는다면 느긋해도 됩니다. 그리고 어쩌 한 거든지 우리가 깨치기 전에는 모든 걸 모 아서 놓는 것이, 놓고 관찰하고 지켜보고 체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공법

## 집중 5일완성

저자 : **법화중현(정홍교) 크스님 직강**



-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지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공할, 태일, 이시병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 **사찰·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 구단구공으로 짚어 귀신벌이 조성천도연계.
-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입 가능함.
- ◆ **특전 : 특별장학금 (50%)**
- ◆ **홈페이지 참조 - www.psa.or.kr [구단구공법] 41-2010-0004261**

특허출원번호 : 40-2010-0009061

홈페이지 참조 - www.psa.or.kr

[구단구공법] 41-2010-0004261

학 과	기간 / 요일 / 시간	강 의 과 목	비 고
불 교 학 과	[기간 - 2년]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유사사상 · 화엄학 · 대승기신론 · 탐사학	대학원과정 (학사이상)
불교교리학과	[기간 - 1년] 화요일 : 오전 10시 - 12시 저녁 7시 - 9시	· 사찰예절 · 근본교리 · 부처님상에 관이신경 · 포교방법론 · 초발심자경 · 천수경 · 금강경	포교사 법 사
정제지도학과	[기간 - 6개월] 월요일 : 오전 10시 - 12시 저녁 7시 - 9시	· 관혼상제 · 정례식장경영론 · 장묘제도(변귀) · 공중보건학 · 상담학 · 장례화 · 개론 · 불교상장례이해 · 실습	정제지도사 1.2급 불교장례지도사
다도예절학과	[기간 - 1년] 월요일 : 저녁 7시 - 9시	· 제다학(2,3,4) · 다구학 · 사찰다도법 · 차의전 · 차 문화사 · 차성분화학	다도예절도교사